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10월 15일(주일) 제1167호



사진은 지난해 남성 부흥집회 '요셉행진'.

나를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10월 24~26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 'ReFORM'
강사 스카이 제서니 목사, 이재훈 담임목사, 유기성 목사

안팎으로 혼란과 위기에 빠진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는 집회가 막 오른다. '2017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가 10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ReFORM'을 주제로 열린다. 10월 21일 끝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에 이어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집회이다. 정

치·경제·외교적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 첫날(24일)에는 '나를 새롭게', 둘째날(25일)에는 '교회를 새롭게', 셋째날(26일)에는 '세상을 새롭게'를 주제로 총 8번의 집회와 강사와 함께하는 'Q&A 토크쇼' 등이 진행된다. 모든 저녁집회는 등록하지 않아도

참석할 수 있는 오픈집회이다.

이번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의 강사는 스카이 제서니 목사, 이재훈 담임목사,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이다. 스카이 제서니 목사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젊은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크리스챤리티 투데이'에서 온라인으로 발행하고 있는 <리더십저널>의 편집장을 역임했고, <하나님을

판다?>, <With>, <하나님의 도시> 등의 저자이다. 이번 부흥집회에서 스카이 제서니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발견하라', '화해의 복음을 발견하라', '진실된 예배를 발견하라', '하나님이 함께해주시는 세상을 발견하라', '세상 속 당신의 소명을 발견하라'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특순도 다채롭다. 박진아 작가(샌드애니메이션), 이광재(색소폰), 주향한성가대, 주시광성가대, 교역자성가대,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 등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특별강

연은 윤정희 사모,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최유강 대표(교육봉사 NGO 드림터치포울)가 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와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2일까지 등록하면 1만원이고, 당일 등록은 2만원이다. 부흥집회 기간 동안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콜은 휴강하지 않고 부흥집회 참석으로 대체된다. 스콜에 참여 중인 성도는 회비가 1만원이다. 문의: 02-3215-335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말씀으로 돌아가는 온누리교회

온누리 성경 읽기표, 드라마 바이블 앱, 개인 성경책 지참

온누리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과 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 운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누리교회는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도록 세 가지 방법으로 권면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성경읽기다.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온누리 성경 읽기표'(책체인 방식)를 따라 온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으면 된다. 온누리 성경 읽기표를 이용해서

성경을 읽으면 1년에 구약 1독, 신약 과 시편 2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일예배와 순예배에서 '드라마 바이블 앱'을 활용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드라마 바이블 앱은 스마트폰으로 성경 66권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배우 차인표, 한인수, 유윤선, 개그우먼 정선희, 성우 장광 등 성우와 연기자 100여 명이 무려 4년 동안 재능기부해서 만든 앱이다. 순예배에서는 온누리 성경 읽기표 해당 날

짜의 본문을 순식구들이 구약 1장, 신약 1장을 선정해서 읽고 예배를 시작하고, 주일예배는 영상을 보며 성경을 읽는 다음 시작한다.

세 번째는 주일예배를 드릴 때 개인 성경책을 지참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회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막으로 본문을 보여줬지만, 지난 1일 주일예배부터는 자막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 개인 성경책을 반드시 지참해서 직접 말씀을 읽어야 한다.

/ 정현주 기자

40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두 번째 스무 살'

11월 20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40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두 번째 스무 살'이 오는 11월 20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참가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22일부터 로비와 목회지원실에서 하면 된다. 11월 6일과 13일에는 요청자 기도모임이 있다. 맞춤전도집회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세례교육과 세례식은 12월 중

에 있을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는 전도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전도집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0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버킷리스트'가 열렸다. 전도대상자 231명 중에서 81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홈페이지: www.onnuri.org

문의: 02-3215-3214

/ 김현준 기자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 강동 사랑부 이제이 어린이

“제이가 노래를 불렀다”

그 아이가 부르는 노래는 기적



강동 사랑부 제이네 가족(좌측부터 셋째 이온, 엄마 이선미, 첫째 이제이)

제이(강동 사랑부 합창단)는 노래를 하지 못했다. 노래는 고사하고 연습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지도 못했다. 그런 제이가 노래를 불렀다.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이는 발달장애를 가졌다. 장애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산만하고, 언어구사 능력도 좋지 않다. 무대에 서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 일쑤였다. 그런 제이가 아빠랑 통화하면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완창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제이의 노래 듣기: 제이와 아빠의 사랑노래
(<https://youtu.be/A0os5gyJBdo>)

장애 아동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본 사람만이 아는 감동이 있다. 실력이 빼어난 것도 아닌데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난다.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어색한데 듣고 있으면 눈물이 흐른다. 부모와 교사들은 그들이 무대에 서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난다. 강동 사랑부 합창단 단원 이제이의 어머니 이선미 성도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강동 사랑부 합창단 단원 제이(13세)와 온(7세)이는 노래를 하지 못하는 단원이다. 그만큼 장애 정도가 심하다. 제이와 온이는 형제다. 둘 다 발달장애가 있다. 또래 아이들보다 지적 능력 발달이 더디다보니 연습시간에 뛰어다니고, 무대에 서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언어능력발달까지 더딘 제이가 노래를 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비록 노래는 할 수 없지만 제이의 부모는 강동 사랑부에서 꾸준히 활동하게 했다. 제이가 좋아하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교사와 봉사자들도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기 때문이다.

큰애에 이어 막내마저 장애 판정

이선미 성도(강동 온누리교회)에게는 자녀가 세 명(제이, 솔, 온) 있다. 그 중에서 제이와 막내 온이가 발달장애를 가졌다. 건강한 자녀 세 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장애를 가진 자녀가 둘이나 있다. 이선미 성도 부부의 고생을 짐작하기도 어렵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것은 그렇다고 해도 마음고생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자녀의 장애가 ‘혹시 나 때문인가’ 하는 죄책감을 수도 없이 느꼈고, ‘그래도 우리 아이는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저버리지 못했다. 날마다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이선미 성도도 그랬

다. 제이의 장애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제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이 조금 느리다고는 생각했는데 장애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이가 두 살 즈음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아무렇지 않게 ‘아이 지능이 낮은 거예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당시 이선미 성도는 남편의 사업실패와 시아버지의 소천 등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거기다 제이가 장애 판정까지 받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 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겨우 겨우 살고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날이 갈수록 우울증이 깊어지면서 제이와 함께 목숨을 버릴까도 생각했었다. 그렇게 우울증으로 4~5년을 고생할 때 그녀를 붙잡아 준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를 다니던 지인들이 함께 교회에 가지며 그녀를 이끌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결혼하고는 이성적인 남편의 영향을 많이 받아 교회에 가지 않다가,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그렇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선미 성도 부부는 강동 온누리교회에 처음 온 날 예수제자학교(JDS)에 등록할 정도로 회복에 대한 갈망이 깊었다. 제이의 장애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 갓 돌이 지난 막내 온이도 발달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제이의 장애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온이까지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발 한 명만이라도 고쳐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 주셨

어요. 영생의 선물을 받고 나니,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하기만 하더라고요”

“아빠 노래 시~작해줘”

이선미 성도네가 강동 온누리교회에 등록할 즈음 마침 강동 사랑부가 생겼다. 제이와 온이는 주중에는 치료실을 다니면서 교육받고 토요일에는 강동 사랑부에서 열리는 토요스쿨에서 미술, 음악 같은 다양한 활동을 즐겼다. 주일에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부 교사와 봉사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제이와 온이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교회에 가게 되면서 이선미 성도에게도 한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 그동안 아이들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었는데 토요일과 주일에 교회에 오면서 심신을 회복했다. 2015년에는 강동 사랑부 합창단이 생겼다. 이선미 성도도 강동 사랑부 합창단에 제이와 온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노래를 전혀 할 수 없었거든요.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께서 ‘노래 못해도 괜찮다’고 하신 말씀에 용기를 내서 합창단 활동을 시작했어요. 노래를 하진 못 해도, 귀로 다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래만 못하면 다행인데 연습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제이는 교회만 오면 펄쩍펄쩍 뛰어다니느라 바빴다. 합창단 연습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때문에 제이가 노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무대에 설 기회가 생기면 늘 무대에 오르게 했다.

“합창단이 생긴 후, 처음으로 강동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특수를 한 적이 있는데 강단에 오르자마자 제이가 휘젓고 다녀서 다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평평 울고 말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이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강동 사랑부 합창단 제1회 정기공연 때도 제이가 첫 곡을 시작하기 무섭게 무대를 휘젓고 다녔다.

“그때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께서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제이가 무대를 휘젓고 다니니까 엄청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던 제이의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았다는 장애인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때 무엇인가를 꼭 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이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어요.”

지난달 23일, 강동 사랑부 합창단이 제2회 정기공연을 열었다. 이날도 제이는 첫 곡이 시작하기 무섭게 무대를 이탈했다. 중간에 무대에 다시 오르긴 했지만, 입 한 번 뱉지 않고 공연을 마쳤다. 그리고 이를 뒤엎었다. 제이가 아빠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빠 노래 시~작해줘”

“노래 시작”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

제이는 아빠와 한 소절 한 소절 주고받으며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완창했다. 그리고 보니 근래 들어 제이의 언어능력이 좋아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개의 단어만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문장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정도로 좋아졌다. 이제는 노래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적 같은 노래였어요. 연습도 안했는데 어떻게 불렀는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회복을 이미 시작하셨고, 주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 가족이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며 살고 싶어요.”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가정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일터는 생존을 위한 전쟁터일 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가 이뤄지는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는 온갖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거짓과 탐욕, 질투와 불평, 교만과 분노, 때로는 죄악들이 선으로 포장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타락 이후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일터에서 나오는 수많은 죄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시험과 도전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가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지나치게 세상적이고, 경쟁적이고, 편파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까다롭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일 경우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시험을 받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 이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고 사는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였던 로마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사회를 움직인 사람들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18~20절).

본문 18절에서 ‘종들이여’라고 했는데 이는 로마시대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종이라고 일컫는 여러 종류의 단어들이 있었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한 것은 ‘둘로스’입니다. 말 그대로 ‘벗어나기 힘든 노예’를 뜻합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나 짐승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었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노예들을 ‘둘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용된 ‘종들’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오이케타스’인

데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종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로마시대에는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1/3이나 될 정도로 그 사회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신분에 속했다고 합니다. 약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신분에 속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인 자유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돈을 저축해서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사회는 그들로 인해서 사회전체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각 가정의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현대사회의 전문직중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의사, 간호사, 교사, 건축가, 부동산 관리자 등이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이 시대 피고용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인구가 많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아픔과 사회적 차별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종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신약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당신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고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고전 7:21~22).

육신적으로 종이라고 해서 비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자유인이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 된 자들이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신분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당시 노예제도를 받아들이는 것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마치 그 제도를 옹호하고 더 철저하게 종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일에 두려워하므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복종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주인의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처분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고난당한다고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종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골 3:22~23).

신분이 종인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행할 때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속으로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인이 볼 때나 안볼 때나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더욱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기라.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라”(딤후 6:1~2).

신약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종의 제도는 잘못된 것이니 그 제도를 바꾸고 혁명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왜 더욱 철저하게 종이 되고,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믿는 주인이라면 더 잘 섬기고, 형제라고 무시하지 말고, 더욱 주인으로 섬기면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영속화 되는 것 아닐까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주인이라면 항의하고 시위함으로써 이런 제도가 없어지도록 투쟁하고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주인에게 더욱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 제도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만약 그 시대에 혁명적인 방법으로 제도 자체를 거부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고 거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시대에는 일부다처제가 용인되고, 문화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갈이라는 여인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부다처제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서서히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제도와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서히 역사하시는 물결들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혁명적인 방법으로 반박문만 붙였다고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적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당시 독일의 정치와 제도, 환경과 인쇄술 발달 등과 같은 모든 여건들이 준비되었을 때 마틴 루터가 불인 반박문이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스파크가 된 것입니다. 스파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스파크를 일으킨 사람이 종교개혁의 주동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파크를 일으켰지만 그곳에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어떤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영향을 받았던 토마스 윈처라는 사람이 농민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곡괭이와 칼과 삽을 들고 당시 영주들의 못되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켰는데 루터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지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농민혁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비판했습니다. 루터는 영주를 지지하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농민혁명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노예제도 폐지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신분으로 인해서 차별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줌으로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만약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없었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제도는 혁명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의 공동체가 변화시킨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흑인 인권을 주장하면서 흑인 인권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흑인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두었으면 그 운동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흑인 인권을 주장하면서 흑인 인권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흑인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두었으면 그 운동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아버지, 당신은 누구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영어단어 ‘Mother’, ‘Father’는 70위 밖
아버지가 흔들리는 시대 ... 그 사랑 그리워하고 고마워했으면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유대인 속담).

어머니보다 애뜻하고 감동적인 대상이 또 있을까. 어머니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고향이다. 그래서일까. 지난 2004년 영국문화원이 세계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단어’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Mother(어머니)’가 1위로 꼽혔다. 그 다음은 ‘Father(아버지)’일까? 유감스럽게도 아니다. Father는 70위권 밖에 있었다. 아버지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아버지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성경에 그려진 아버지들의 모습이 대체로 부정적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행 13:22)라는 칭호를 얻은 다윗조차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어디 다윗뿐일까.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자식 교육에 실패한 불우한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들의 슬픈 자화상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창 25:28)로 인한 희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조차 자식들을 편애했다. 아내 라헬이 죽자 야곱은 요셉을 더욱 사랑했고, 이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냈다. 결국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13년 동안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했다. 편애 하던 자식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은 13년 동안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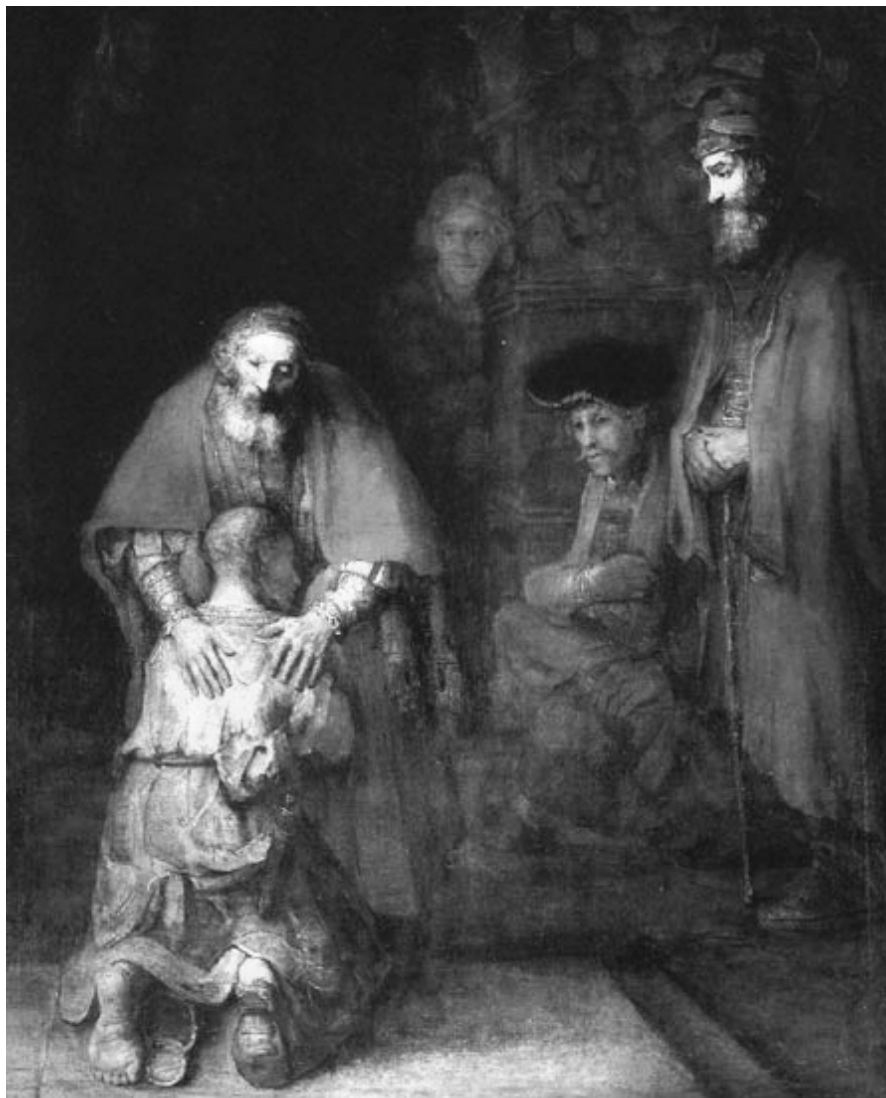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고 말았다. 그는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제물을 탈취하며,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을 해도 방임했다.

엘리가 나이가 들어 두 아들을 훈계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두 아들은 엘리의 훈계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삼상 2:25) 결국 하나님이 진노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며,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산기가 있었던 그의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하다 목숨을 잃었다. 자식을 방임했던 아버지의 말로는 기문의 종말이었다.

다윗 왕은 성경에 나오는 영웅 중의 영웅이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인물이다. 다윗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의 인생과 나아가 이스라엘 왕국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경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삼상 1:6)고 설명하고 있다.

다윗은 아도니아를 제멋대로 내버려두고 그의 응석을 다 받아주었다. 다윗은 아들 아도니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

야를 바로잡고 훈계하는 것을 생략하는 죄를 범했다. 결국 아도니아는 불순종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이 됐다. 다윗의 자녀 훈육의 실패는 비단 아도니아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하였고, 이에 대해 다윗이 심히 분노하였지만(삼하 13:21) 이를 바로잡았다는 이야기는 없다. 제대로 훈육받지 못한 암논은 음탕하고, 악독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자라고 말았다. 이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원통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의 일로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쳤다(삼하 13:23-29). 다윗은 압살롬의 마음을 세심하게 어루만지지 못했고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했다. 이 일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다윗이 “내 아

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삼하 18:33)라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다윗은 자녀들의 악함을 알고 있었지만 제지하지 않았고, 바로잡아야 할 책임을 무시한 실패한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

왜 성경에는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 오늘날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 아버지들은 어머니보다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걸까. 여기 ‘아버지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작자 미상의 시가 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겉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그곳을 직장이라고 한다)는
즐거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열 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열 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씨가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우리는 아버지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바알랜드’라는 사회학자가 젊은이들을 상대로 그들의 접촉상대 빈도율을 조사했는데 가장 많이 접촉하는 상대가 친구였고, 그 다음이 어머니, 아버지, 모르는 사람의 순이었다. 그 비율을 10으로 환산했을 때, 미국의 경우 친구 4, 어머니 2.5, 아버지 2, 모르는 사람이 1.5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친구 5, 어머니 3.5, 아버지 1, 모르는 사람 0.5로 조사됐다.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모르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의미다.

아버지는 자녀를 무섭게 호통치고 야단이나 치는 사람, 그저 돈이나 벌여다 주는 사람, 얼굴 보기 어려운 사람, 별로 인기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아버지란 말은 어머니 못지않게 아름다운 단어이다. 아니 오히려 더 목직하다. 아버지는 예수님이 비유한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신실한 존재이다. 무엇보다 모두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만큼(롬 8:32)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깊어가는 가을,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고마워했으면 좋겠다.

전문가 기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 공감하는 남편, 소통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빛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리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 즉시 돕는 배필을 주지 않으시고, 온갖 동물들을 이끌어 오셔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차피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했으면 먼저 하와를 만들어주신 후에 “너희들이 잘 의논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왜 나는 혼자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담은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중에 정서적,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것이다.

인간은 외로움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성숙해진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런 사정을 모른척 하시며 계속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다.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은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수많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을 다 기억하려니 벅찼을 것이다. 그때 드는 생각이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였을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아담이 스스로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하와를 본 아담은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창 2:23, 새번역)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 이 그렇게 탄생했다.

아담의 침묵, 인류 비극의 시작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탄이 등장해서 하와를 유혹한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 3:1-6).

이것이 죄의 뿌리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천지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순간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다.

아담의 침묵이 인류 비극의 시작이었다. 왜 아담은 침묵하고 있었을까? 분명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도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는 명령을 주셨는데도 말이다. 이에 대해 <아담의 침묵>이란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담은 침묵의 남자, 수동적인 남자였다. 역사의 많은 남자들처럼 그는 몸으로는 존재했으나 마음은 부재했다... 그의 죄는 침묵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뱀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열매를 받아서 그대로 먹었다. 아담은 금단의 열매를 먹기 전 세 차례나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에서 창조세계를 끌어내셨다. 아담의 침묵은 창조세계에서 다시 혼돈을 불러왔다.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해 관계를 세우셨음을 잊지 말라. 아담은 침묵을 사용해서 관계를 파괴했다. 하나님은 창조 작업 후 쉬셨다. 아담은 침묵의 결과로 더 고되게 노동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담이 하나님을 반영하지 않았다. 부재,

역을 전수해야 한다. 이것은 내 현재의 삶을 더 큰 시야 안에 두는 행위다. 그러나 아담의 침묵, 망각, 합리화는 결국 가정의 비극, 폭력, 살인, 성도착 등 인류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하갈의 사건에서 보여준 아브람의 침묵(창 16:2-3), 딸 디나의 아픔을 보고 잠잠하고(창 34:5), 장남 르우벤의 패역한 행위에도 침묵한 야곱(창 35:22), 암논의 근친상간 이야기를 듣고 분노는 했지만 침묵한 다윗(삼하 13:1-22),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삼상 2:22-25)과 사무엘 선지자(삼상 8:1-5),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밝은 면도 보였지만 많은 그림자를 던졌다. 결국 남성성을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힘으로 통제하고, 통제가 안 되면 분노하고, 침묵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무력함을 감추기 위한 파괴적인 행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조종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아왔다. 업적을 남기는 데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관계에는 실패하고 말았



침묵,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세상을 살아가며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면을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소명이다. 우리는 움직이고, 말하고, 창조하고, 사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 삶에 이 형상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남자는 자기 세계의 혼돈을 향해 말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형상을 삶으로 살아낸다. 그러나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에는 그 이상이 들어있다.

침묵, 망각, 합리화가 결국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라는 부분에서 ‘남자’는 기억하는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자카르’(Zakar)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남자들은 뭔가 중요한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도록 부름 받았다. 단지 역사의 승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

다. 그들은 남자로서는 멋진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남편으로, 아버지로서는 실패했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길

어느 교도소에서 아버지학교를 할 때였다. 재소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영상편지를 보냈다. 아들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남자로서는 그래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존경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에 충실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존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남편으로서의 뺑뺑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나이 마흔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며 울고 있었다. 아버지의 부재, 역할의 혼란이 빚어낸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다.

얼마 전 인터넷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아버지, 세상에는 온통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는 없는 세상인 듯합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다들 세상에서 우리 엄마만큼 고생한 사람 없으며 ‘우리 엄마, 우리 엄마’ 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무얼 하셨습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느라 묵묵히 집안에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었고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뒷사람 눈치 보며 아랫사람에게 밀리면서 오로지 여우같은 마누라와 토끼같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일에 일신을 다 바쳐오지 않으셨나요? 시대의 흐름이라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여! 이제라도 당신을 위해서 사십시오.”

남자로 태어나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갈 지도자이며, 가정의 제사장이다. 아버지는 경제적 부양의 책임자이며, 가족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고, 사회적 역량을 함양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소명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족들에게 경험시켜야 할 통로이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다움을 갖춰야 한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왕상 2:2)라는 극적인 유언을 남겼다. 문제는 아버지들이 가정에 들어와서도 남자로 살려고 한다는 것에 있다.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되어야 하고,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남자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공감하는 남편, 소통하는 아버지가 되는 길과 진정한 남성이란 무엇인지를 힘써 배워서 하나님의 심장을 지닌 아버지로서 살아내야만 한다.

성경에 나오는 남자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인 것이 많다. 그러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모델을 찾기는 너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요셉은 당시 문화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경건한 남성으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며, 온 가족과 가문, 나아가서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한 신앙인이었다. 요셉은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거짓과 편애, 그리고 상처로 얼룩진 떠남(이스마엘, 야곱, 요셉 자신)의 잘못된 영향력을 단호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시작했다. 그는 정말 멋진 남편이자 멋진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삶의 원천이며, 자녀들의 지표이다. 자녀들의 자부심이며, 자녀들의 미래의 보장이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김성묵 장로
(두란노아버지학교운
동본부 이사장)

“고향에서 가족들 만난 것처럼”

요셉공동체와 새터민이 함께 보낸 한가위



▲ 한터공동체 새터민과 한국 성도들이 인조고기밥을 만들고 있다.



▲ 요셉공동체 청년과 새터민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6일, 대학청년부 요셉공동체가 새터민(탈북민)들과 함께 풍성하고 의미 있는 추석을 보냈다. ‘한가위 ODO(One Day Outreach)’가 바로 그것. 한가위 ODO는 대학청년들이 추석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이웃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행사이다. 요셉공동체와 함께 추석을 보낸 새터민들은 “고향에서 가족들을 만난 것처럼 기쁘다”고 고백했다. 그 은혜로운 현장에 동행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6층 한터 도서관에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요셉공동체 지체들과 올해 한국에 온 새내기 새터민부터 정착한지 10년 이상 된 새터민까지 50여 명의 탈북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요셉공동체가 만난 새터민들은 홀로 추석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었다. 새터민들은 대부분 혼자 살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한에 살고 있는 새터민 10,218명 중에서 혼자 살고 있는 새터민은 32.1%로 가장 많았다. 남북하나재단의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할 때 혼자 입국한 탈북자는 64.4%였고,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경우가 51.3%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터민들은 매년 명절을 혼자 쓸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혼자가 아니었다.

천국 간 둘째 아들의 말 한마디

요셉공동체는 올해 5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한터에서 새터민들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새터민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원만하게 한국사회의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이번 추석연휴는 새터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추억도 선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요셉

공동체는 새터민들과 함께하는 ‘한가위 ODO’를 기획했다. ‘한가위 ODO’는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행사이다. 요셉공동체는 홀로 추석을 보낼 새터민들을 위해 이른바 ‘한누리 한가위 블레싱’을 준비했다. 한누리 한가위 블레싱에 초청할 주인공은 하나원에서 만난 새터민이었다. 이원화(가명)씨는 그 중 한 명이다. 이원화 씨는 올해 3월 한국에 입국했다. 국경원 조사를 받고,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뒤 지난 8월 수료했다. 다른 새터민처럼 그녀도 한국 땅을 밟기까지 곡절을 겪어야 했다. 북한에서 고등학교 교사였던 그녀가 탈북한 이유는 살기 위해서였다.

“두 아들이 중국에 사는 친척을 따라 탈북했는데 형무소 사람들이 저를 잡아가더라고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그제서야 집으로 보내 주더라고요.”

당시 인문반장(마을 통장)을 맡고 있던 그녀의 친구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탈북을 권했다. 그때가 1997년 10월이었다. 그녀는 새벽 어둠을 가르며 홀로 압록강을 건넜다. 사람만 나오면 수풀 사이로 숨기를 반복하다 중국 삼림경찰차와 마주쳤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중국 경찰에게 평평 울면서 “자신을 북한에 보내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녀의 간절함이 중국 경찰의 마음을 녹였는지 그 경

찰은 그녀를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안내했다. 중국 땅을 밟은 지 3일 만에 두 아들과 재회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불행이 찾아왔다. 둘째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 통나무를 실은 차에서 통나무 하나가 굴러 떨어지면서 둘째 아들을 덮쳤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관찰아진 것 같았는데 심장에 염증이 생겼다. 죽을 고비에 놓여있던 둘째 아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요. 어머니도 꼭 하나님 믿으세요.”

보름 뒤 둘째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겼다. 아들을 잃은 이원화 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첫째 아들이 가출을 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진 그녀에게 둘째 아들의 말이 떠올랐다. 이원화 씨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건강도 조금씩 회복됐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 언제 복송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작년부터 북한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탈북한 사람들을 잡아가는 운동을 벌이는데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올해 2월 북송운동이 극에 달하자 한국으로 가기로 다짐했다. 미안마,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 땅을 밟았다. 그녀는 고향을 떠나온지 18년 만에 한국에서 첫번째 명절을 맞이했다. 이번 명절이 그녀에게 더욱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살기 바빠서 명절을 제대로 보낸 적이 없었어요. 명절 때마다 늘 쓸쓸했는데 오늘은 기쁨이 가득해요. 모두 여러분 덕분이예요.”

복음도 전하고, 추억도 선물하고

요셉공동체는 새터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잊지 못할 추억도 선물했다. 북한 음식을 대접하고, 레크리에이션, 서빙고 아트비전팀과 함께 액세서리(목걸이, 팔찌, 브로치) 만들기, 찬양, 장기자랑까지 준비했다. 하루 종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요셉공동체 지체들은 새터민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새터민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다. 그 사랑과 헌신 덕분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새터민들도 마음을 활짝 열었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은 장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빠놓지 않았다. 요셉공동체 김형욱 형제는 봉사와 황금연휴를 맞바꾼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했다.

“새터민들과 함께하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있던 어색함도 사라졌고요. 이렇게 의미 있게 명절을 보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음식이 새터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평소 즐겨먹는 두부밥과 인조고기밥, 쌀과 시래기를 넣은 북한표 순대, 북한에서 명절에 먹는 떡 밴새, 노가리(명태) 볶음 등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떠오르게 했다. 오랜만에 고향 음식을 맛본 새터민들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맛도 일품이었다. 그 맛이 얼마나 빼어났는지 새터민 박재민(가명) 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두 그릇을 비웠다.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순대 하나는 끝내주게 만들었거든요.”

한가위 ODO의 백미는 장기자랑으로 장식했다. 안 그래도 무르익어가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관객석에 있던 새터민들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다. 특히 하유리(가명) 자매가 열창한 ‘반갑습니다’는 보는 모든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오태성(가명) 형제는 하나원에 있는 새터민들을 생각하면서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불렀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뒤에 두고 가는 마음... 몸이 찢겨 가루돼도 한국 땅을 찾으리라♪”

그의 삶도 평탄하지 않았다. 집에 쌀이 없어서 탈북한 오태성 형제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러시아로 향했다. 그곳에서 처절한 외로움을 맛봐야 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왔지만 허전함은 여전했다. 무려 20년을 전전하다 올 해 한국에 왔다.

“오랜만에 따뜻하고, 흥겨운 명절을 보내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도 맺혔다. 이날 이원화 씨 초대로 온 황미연(가명)씨가 앞으로 교회에 다니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청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번 주부터 꼭 교회에 나갈 겁니다.”

이기훈 목사의 영국의 개혁주의 신앙을 찾아서 2

영국 종교개혁의 시작과 교회

종교개혁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루터와 독일을 떠올린다. 이에 비해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고, 미국에서 성장한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다. 유럽의 작은 섬나라 영국의 개혁주의 신앙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과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기훈 목사가 영국 개혁주의 신앙의 흔적을 찾아 가는 글을 4회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영국의 종교개혁은 안 후스의 체코, 루터의 독일, 츠빙글리의 스위스, 존 칼빈의 프랑스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다. 영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성경적이지 못한 가톨릭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종의 교회개혁운동이 일어났다. 따라서 그들은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예수(Sola Christos),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이라는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개혁운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영국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개혁이 이뤄졌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요, 성경만이 진리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던 순교당한 위클리프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출판하려던 순교당한 윌리엄 틴델 등의 개혁운동도 있었지만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수장령과 성공회

루터가 독일에서 교회개혁운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을 때 영국에서는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헨리 8세가 1534년 11월 3일 수장령(首長令)을 발표한 것이다. 수장령은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로부터 분리되고, 잉글랜드 국왕의 통치 아래 둔다는 선언이었다.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헨리 8세의 이혼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그는 아들을 낳아 왕위를 계승하길 원했다. 딸이 왕이 될 경우 왕실의 미래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아내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혼하고, 자신이 좋아하던 시녀 앤 볼린과 재혼하려 했는데 로마 교황이 이를 허락해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이혼과 재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자신의 통치 아래 두었다. 영국 교회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유럽의 종교개혁은 선지자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영국은 국왕이 주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800여 년 동안 정착되었던 영국 가톨릭교회는 헨리 8세에 의해 ‘영국 국교회’라는 이름의 새 옷을 입게 되었다. 그 교회를 ‘성공회(Anglican Church)’라고 부른다. 성공회라는 이름은 한자 문화권에서만 사용하는데 그 이



▲ 영국 왕자의 결혼예식이 열리는 성 바울 교회.



▲ 영국 국교회의 상징인 캔터베리 교회.

유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의미를 줄여서 표현했기 때문이다. 성공회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표하기 전인 1532년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크랜머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청에 보내던 모든 세금 납부를 금지시켰고, 수도원을 해산할 뿐 아니라 모든 토지 및 재산을 몰수하였다. 라틴어로 쓰여 있던 예배는 영어로 바꾸었다. 이것은 당시 유럽에서 라틴어로만 예배하고, 성경을 보고, 설교해야만 했던 가톨릭교회의 통제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는 예배의 핵심인 성경, 공동기도서, 신앙고백서, 설교 등을 모두 영어로 하고, 성경은 틴델이나 커버데일이 번역한 영어성경을 사용하였다. 성도들에게는 딱만 주던 성찬식을 포도주도 제공하는 이중성찬을 실시하였다.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하였으며, 교회 내 모든 성화나 성상을 제거하였다. 헨리 8세의 이러한 개혁의 이면에는 성경적이지 못한 교황의 강력한 권위에 정면도전하는 개혁정신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성공회는 개신교에 속해있으면서도 가톨릭교회에 중용적 입장을 취했다. 이것은 의식 중심으로 드러지는 성공회 교회 예배에 참석해보면 금방 느낄 수 있다.

헨리 8세가 세상을 떠나자 영국에는 국교회로서의 자리를 지키려는 성공회, 헨리 8세 때문에 잃은 자리를 되찾으려는 가톨릭교회, 후에 청교도로 발전하게 되는 유럽의 종교개혁 영향을 받은 개신교회 등 세 분파가 등장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존 녹스

영국의 종교개혁이 한국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이다. 필자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이 어릴 적 다니던 장로교회와 너무 똑같아서 놀랐다. 역사를 더듬어본 결과, 한국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은 존 녹스이다. 그는 최초의 스코틀랜드 대학인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1536년 사제가 되었다. 녹스는 에든버러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 성안에 피신해 있던 개신교도들을 돕다가 프랑스 군대에 생포되어 프랑스 전함에서 19개월 동안 노예생활을 하였다. 1549년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그는 설교 사역을 했는데 가톨릭교도인 메리(헨리 8세의 딸)가 왕으로 취임하고 가톨릭교회를 지지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망명하였다. 제네바에서 칼빈을 만난 녹스는 그의 신학과 개혁정신에 영향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 후에 청교도들이 애용하는 제네바판 영어성경을 출판했다. 이러한 그의 행적 때문에 녹스는 제네바에 있는 바스티옹 공원(Parc Des Bastions)에 칼빈, 파렐, 베자 등과 함께 개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있는 것 같다.

녹스는 1559년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가톨릭 군주 치하에서 설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개혁을 진행했다. 그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교회 치리서, 예배 모범 등을 집필해 보급하였으며, 1563년 메리 여왕이 퇴위하고 아들 제임스 6세가 즉위할 때 설교를 담당함으로써 개신교회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개혁에 성공한 것이다.

녹스는 칼빈에 의해 제안된 장로교적 교회 구조를 스코틀랜드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당회, 노회, 총회의 구조는 모두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온 것이다. 장로들이 교회 운영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교파 이름을 장로교라고 불렀다. 그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성일을 없앴으며, 주일만을 중요한 예배의 날로 정했다. 교회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경의 정확한 번역과 보급이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된 성경번역운동은 윌리엄 틴델까지 이어졌으며, 그의 신약과 구약 일부 번역본이 오늘날 영어성경의 기초가 되었다.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영적 무지를 깨우치고 성경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성 앞에 있는 녹스가 목회했던 성 자일즈 교회(St. Giles)에 가면 많은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신앙개혁이란 성도와 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웨스트민스터, 성 바울, 캔터베리 교회

영국 런던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영국 국교회의 분위기를 크게 느낄 수 있는 교회 세 곳을 방문할 것을 권한다. 왕의 즉위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교회(Westminster Abbey), 왕자의 결혼예식이 열리는 성 바울 교회(St. Paul Cathedral), 영국 교회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캔터베리 교회(Canterbury Cathedral)가 바로 그것이다. 1245년 헨리 3세가 고딕양식으로 건축한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장례식이 열린 곳으로도 유명하다. 처칠 수상, 셰익스피어, 헨델, 시인 윌리엄 에드워드, 과학자 뉴턴,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등의 묘가 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왕족을 위한 교회였다면 성 바울 교회는 서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교회였다. 성 바울 교회는 1666년 런던 대화재로 완전 소실된 이후 건축가 크리스토퍼 랜에 의해 35년 동안 건축되었다. 이곳에서는 1965년 처칠 수상의 장례식이 열렸고, 1981년엔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결혼식이 열렸다. 지하 납골당에 가면 영국의 유명 화가 레이놀즈 터너, 피터팬의 작가 J. 베리,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 간호사 나이팅게일 등의 묘가 있다.

런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있는 캔터베리 교회는 597년 로마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어거스틴이 대주교로 사역하던 영국 최초의 가톨릭교회다. 헨리 8세가 가톨릭교회의 재산을 몰수할 때 영국 국교회로 편입되었으며, 지금도 명실공히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부, 일대일 사역 본부장)

특별기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

페미니즘과 네오마르크시즘 그리고 성혁명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롱나비 상임대표
송실대 기독교학대학
원 설립원장)

21세기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젠더(사회적 성)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는 후기 현대 이데올로기(유사종교)로서 지구촌의 사회와 가정에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신성한 결혼제도와 가정, 남성과 여성 각각의 사

명과 역할까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제도, 가정과 선천적으로 주어진 남녀 각각의 사명과 역할까지 해체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이루는 일부일처제라는 결혼제도를 해체하고 그 대안으로 동성애적, 레스비적, 성 전환적, 혼음적 형태가 ‘성적 다양성(sexual diversity)’이라는 표현과 명목을 가지고 동등한 가치를 가진 생활공동체를 제안한다. 이러한 형태들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사람들인 정상적인 이성애자들을 ‘동성연애 혐오자’로 취급하고, 비난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사회구조적으로 억압한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배경

젠더 이데올로기는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좌파 페미니즘이 산출한 것이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대학교 의과대학의 뉴질랜드 출신 심리학자 존 머니(John Money, 1921-2008)가 1955년에 이 단어를 응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젠더의 의미는 ‘성별 구분이 매우 애매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 즉 출생 시 남녀의 판명이 어려운 상태의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성별 역할을 특정 지우는 결정적인 것은 생물학적인 천성이 아니라 양육과 교육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실존주의 철학자인 시몬느 드 보봐르(Simone de Beauvoir, 1908-1986)도 “여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페미니즘 운동에서 원래 영문법 용어에서 남녀를 가리키는 성(性)의 의미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변화되어 사회적 성 용어, 젠더(gender)에 의해서 구축되고 바뀌어 가고 있다. 젠더(gender)라는 단어는 원래 양(兩)상 반성(Bipolaritat)의 성(Geschlecht)의 개념으로 영문법 용어였다. 본래적인 의미에서 젠더(gender)란 생물학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 신체와 정서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성(性)이며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통칭한다. 대부분의 사회는 특정 성(sex)에 부합되는 젠더의 특징이 있으며 사회구성원을 그 방향으로 사회화시킨다.

그런데 이 용어는 페미니즘에 의하여 이데



성별 역할은 양육과 교육의 결과라고 주장한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실존주의 철학자인 시몬느 드 보봐르.

올로기로 사용되면서 생물학적인 성별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회에 의해 교육되고, 숙련된 사회적인 역할만을 묘사하고 있다. 페미니즘에서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주어진 생물학적 성(性, Geschlecht, sex)을 비판하여 사회적 성인 젠더(gender)가 생물학적 성과 무관함을 강조한다.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중심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 의해 여성들에게 부과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성이란 태어날 때 주어진 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할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남자가 심리적으로 여자가 되고, 여자는 심리적으로 남자가 된다. 그래서 남자로서 동성에 하는 자를 게이요, 여자로서 동성에 하는 자를 레즈비언이라 불린다. 이리하여 성 평등을 실현하지는 것이요, 이러한 성 평등 실현은 더 나아가 수간(獸姦), 소아성에, 근친상간, 일부다처, 일처다부로 등으로 나아가게 된다.

네오마르크시즘(neomarkism)

1930년대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파로 불린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를 중심으로 한 아도르노(Theodor Adorno), 프롬(Erich Fromm), 벤자민(Walter Benjamin), 마르쿠제(Herbert Marcuse) 등은 마르크스 사상과 프로이트 이론을 연결하여 네오마르크시즘을 만들었다. 공산주의가 무너질 당시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후기 구조주의(post-structuralism)가 득세하면서 자유주의 하의 전통적 가치 구조를 모두 해체하고, 기존의 질서를 모두 부인하는 사상이 득세하고 있었다. 이때 사회주의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사상의 변화에 맞추어 정통 마르크시즘에 수정을 가하여 네오마르크시즘(neomarkism)이라는 사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유럽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사회구조를 마르크시즘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던 것을 고만하던 유럽 공산주의자들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체제를 전복해야 한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네오

마르크시즘(neomarkism)이다. 네오마르크시즘이란 공산주의가 쇠퇴하고 와해되면서 시대를 이끄는 사상이 되지 못하자 막시즘의 분파로서 등장한 사상이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당시 시대의 최고 이슈였던 휴머니즘을 마르크시즘(marxism)에 결합시켰다. 이들은 사회주의 사상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을 표면적으로 내세운다. 이들이 주장하는 휴머니즘은 바로 인권, 평등, 평화, 나눔, 정의, 소수자 인권보호 등 그럴싸한 구호를 내세우기 때문에 196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여 시대를 이끄는 주류사상이 되고 있다. 동성에 인권운동은 네오마르크시즘(neomarkism)의 ‘성 정치학(sex-politics)’에서 연유한다. 포스트모던 사상의 시대적 분위기에 힘입어 동성에 운동은 소수자 인권운동이란 양의 털을 쓰고 교묘히 자리를 잡았다.

빌헬름 라이히와 허버트 마르쿠제

성 정치학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반기독교적 유대인으로서 프로이트로부터 정신분석학을 배워 활동하다 미국으로 건너간 가장 급진적인 정신분석가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1897-1957)이다. 라이히는 1927년과 1930년 사이에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마르크시즘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정신분석학에 대한 사회학적 비판을 정식화했다. 이러한 1930년대 그의 사상은 <성 정치학>(Die sexuelle Politik)이라는 저서로 출판되었다. 라이히는 마르크시즘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연결하여 프로이트-마르크시즘(Freudian Marxism)을 정립하였다. 마르크스의 사회과학적 분석이 말하는 자본가 계급에 의한 노동자의 노동력 억압과 착취 그리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말하는 인간 리비도(libido, 성본능, 성충동)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억압과 착취라는 두 이론을 합성하여 ‘성정치’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라이히는 성적 욕구를 억누르게 하는 문화는 잘못된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고, 일부일처제 폐지, 성윤리 해체 등 무제한적인 성적 욕망의 추구를 정치이론화한 운동이었다. 그는 1924년 정

신분석학 모임에서 최초로 ‘오르가즘(Orgasmus, orgasm)’이라는 용어를 창안하여 소개하였고, 1927년 오르가즘의 기능이라는 책을 출판했으나 정신분석학의 원조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이 오르가즘 이론을 거부하였다. 라이히는 마르크스의 혁명사상에 프로이트의 성적 욕망 개념을 넣어 성 관념이나 도덕 윤리를 억압하는 기존의 질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개인의 성욕을 억누르는 사회적 제약을 해체하고, 성해방을 실천하는 성 정치학(Sexuelle Politik) 이론이다. 그는 전통적인 일부일처제와 성도덕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성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한다고 생각하였고, 기독교 윤리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충동과 성 욕구를 부인하게 하는 억압교육을 행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개인문제로 간주했던 성 이슈를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시켰고 성해방(sex liberation)을 통하여 짓눌린 인간 해방(human liberation)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프로이트의 성 억압 이론을 마르크스의 사회비판과 연결시켜 자본주의 사회요, 기독교 사회인 서구사회가 만든 억압 문화 체제 속에서 인간을 착취된 노동력과 억압된 성을 해방시킴으로써 개인들은 진정한 해방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네오마르크시즘은 빌헬름 라이히의 성 정치학 이론을 추종한다.

네오마르크시즘의 중심인물인 마르쿠제 역시 그의 책 <문명과 에로스>(Eros & Civilization)에서 “쾌락 원칙을 따르는 인간의 본능은 자연스러운 생의 충동-Eros에서 출발한다”고 천명하였다. 마르쿠제는 라이히처럼 인간은 본능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어야 행복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이 바로 성정치이며, 성적 쾌락을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문명체제는 인간의 쾌락본능을 억제시켜 필요한 생산에너지로 바꾸어 관리한다고 보아, 지식인들이 의식혁명을 통해서 기존 문명체제를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성적 쾌락이 행복의 근원이므로 모든 종류의 성적 행위를 인정하는 에로스 사회 건설, 즉, 성매매 합법화, 포르노 합법화 뿐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 어린이를 성행위의 대상으로 하는 소아성에, 수간(獸姦), 기계성에, 시체성에 등 30여 종 성적 취향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논리로 귀결시킨다. 오늘날 서유럽의 국가들은 이러한 성 정치학 이론을 추종하여 성적 방종을 추구하는 학교 내 성교육과 예술 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러한 문화 마르크시즘, 문화 좌파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프랑스 68혁명: 성 해방 문화혁명

1968년 5월에 소로본느 학생들을 중심으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불합리한 사회구조의 개선을 기치로 일어난 프랑스 68혁명은 네



성해방과 성혁명을 시도한 프랑스 68혁명.

오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받아 구세대의 관습과 문화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고자 한 문화혁명이었다. 68혁명의 저항정신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인 혁명운동으로 연결되면서 사회문화적 변동을 초래하게 됐다. 이것이 구조를 선험적·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던 초기 구조주의와는 대립하는 것으로 구조의 역사성과 상대성과 탈 중심을 강조하는 사상인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운동이다.

68혁명은 이전의 자본가와 노동자, 제국주의와 식민지 등의 이데올로기 투쟁을 넘어서서 일부일처제 가족제도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도, 가정과 성별의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고자 한 문화혁명이었고, 성을 정치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 전통적으로 결혼과 가정과 양성(兩性) 제도에 억눌린 성을 해방시키고자 성혁명을 시도하였다. 성윤리도 해체의 대상이 되었고, 동성애자였던 푸코(Michel Foucault)가 대표적인 사상가였기 때문에 네오마르크시즘을 추종하는 좌파는 동성애를 지지하게 되었다.

네오마르크시즘은 여성을 억압받는 대상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마르크스 페미니즘(Marx-feminism)을 태동시켰고, 나아가 급진주의 페미니즘(radical feminism)도 나타났다. 이들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기 위해 ‘레즈비언으로서 살라’는 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페미니즘과 동성애운동은 같이 움직인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성소수자라는 감성에 호소하고, 남성 위주의 현 사회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한 성 정치(sex politics)를 지향한다. 모든 사람들이 성 평등하여 동성결혼을 허락하고, 성소수자를 옹호하며 호주제 폐지, 대리모 출산의 정당화, 남근(男根)주의의 타파, 여성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명명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인권 범주에 들어가도록 투쟁하였다.

페미니즘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주디트 버틀러 퀴어이론 창시, 젠더학 도입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구자요 퀴어 이론(Queer theory) 창안가 주디트 버틀러(Judith Butler, 1956~)는 1956년 출생으로 헝가리 러시아 출신 유대교 학자의 가정 출신으로 미국에서 성장하였다. 그녀는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 이론가로서 1990년 전후하여 미국 버클리대학의 비교문화교수요, 마르크스주의 페

미니스트철학자요, 레즈비언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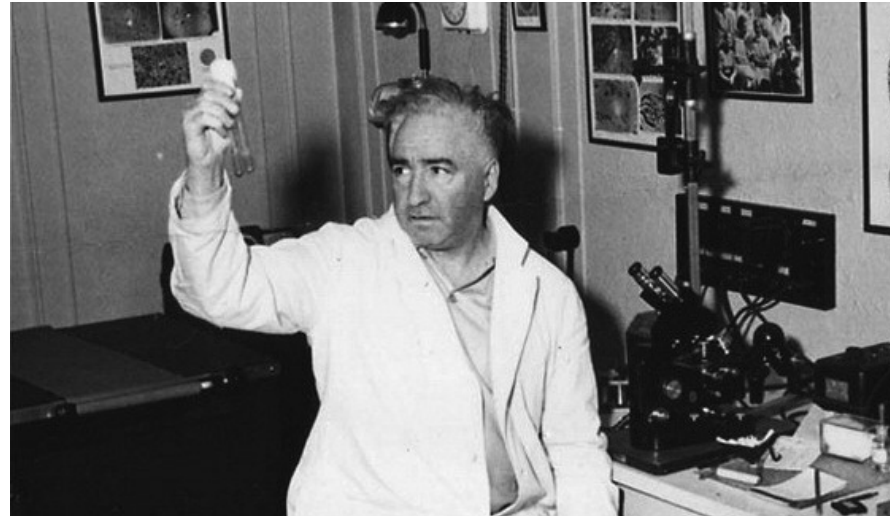
그녀는 특히 2012년 9월에 프랑크푸르트 시로부터 테오도르 W.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상을 받았다. 그 후 20년 사이에 주디트 버틀러의 퀴어 이론은 많은 대학에서 ‘젠더학(Gender-Studies)’이라는 명칭 하에 정규과목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버틀러에 의해 1990년대에는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는 ‘언설(言說)결정론’이 등장하였다. 생물학적인 성(sex) 구분은 잘못된 것이며, 후천적 학습에 의해 성(gender)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여 지금 서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중이다. 역시 네오마르크시즘을 추종한다.

버틀러는 1990년 출간된 저서 <젠더 트러블-페미니즘과 정체성의 도약>(Gender Trouble-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에서 ‘성의 불편감(Das Unbehagen der Geschlechter)’을 언급하면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전복과 파괴에 관해 다루고 있다. 버틀러는 이 저서에서 여성 없는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섹스/젠더 이분법을 허물면서 기존 페미니즘의 성 정치학에 도전하였다. 그녀는 퀴어 이론의 관점에서 보바르, 프로이트, 라캉, 데리다, 푸코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저서는 수많은 논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그녀를 영미지성계의 슈퍼스타로 만들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부부와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본래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천성적인 의무가 없다고 한다. 젠더라는 언설 실천이 그 효과로서 언설에 선행하는 것으로서의 ‘섹스화 된 신체’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신체 그것은 이미 젠더에 앞서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다. 섹스나 젠더 모두 철저히하게 문화적인 사건인 것이다. 나아가 그녀는 생물학적 성별에 기초한 모든 의무들은 남성 우월주의에 근거했다는 전제 하에 성에 기초한 모든 구별을 근절시키고자 했다. 그러한 주장의 불합리성과 무모함이 확인된 가운데서도, 그녀는 ‘중성적 언어(gender-neutral language)’ 예컨대 남학생과 여학생 대신 학생, 남성과 여성 대신 사람 도입을 시도했다.

성차별 철폐운동의 본부 유엔: 지구촌에 성혁명을 보급하는 센터

젠더 이데올로기가 사회문화를 바꾸는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성차별 철폐운동(Gender Mainstreaming, GM)’이다. 성차별 철폐운동의 개념은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 3



‘성 정치’라는 용어를 만들고 무제한적인 성적욕망의 추구를 정치이론화 한 빌헬름 라이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차별금지 항목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

차 UN 세계 여성대회 때 처음으로 토론되었다.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4차 UN 세계 여성대회에서 더욱 진전되었다. 베이징 결의서는 국제연합(UN) 결의서로 채택되었고, 4년 후 유럽 연합(EU)의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성 차별 철폐운동이 확정되었다. 유럽 연합(EU)은 이미 1997년에 성 차별 철폐운동을 회원국들의 의무라고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 5월 1일부터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성 차별 철폐운동이 실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를 포함하여 유럽 연합(EU)회원 정부들도 결국 성 차별 철폐운동을 자신들의 정부 법적 준칙 속으로 정착시키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성차별 철폐를 실행하고 있다.

오늘날 성 차별 철폐운동은 유엔(United Nation)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총회나 이사회가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다. 단지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세계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해온 유엔이라는 공식기구의 이름을 단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내 동성애 인권화 운동은 공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을 취급할 때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원칙을 채택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후로 많은 유럽 대학에서 젠더학(Gender-Studien)을 새로운 학과로 도입하였고, 그로 인해 대학생들은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조장 ‘성적 지향’ 문구 삽입 및 정책적 조장

한국에서도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

원회가 생겨 동성애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차별금지 항목 중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 하나에서 파생되고 있다.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으로 내보면서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하여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동성애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게이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2000년 이후에 35%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후 계속 1,000명 이상 신규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은 인권위 법 제2조 3항에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사유로 규정하여 동성 간 성행위 반대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에이즈의 최대감염 원인은 동성 간 성행위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가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등 동성애 조장을 위하여 생긴 기관인 것처럼 많은 좋지 못한 인상과 편견을 국민들에게 심어놓았다. 심지어 내년 지방선거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헌법개정에 동성애 허용 차별금지법을 헌법에 삽입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여당 내 동성애 추종자들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한국 대학 교수들이 동성애 동성혼반대전국교수연합을 결성하여 전국적으로 3백 여 개 대학에 3천명 넘는 대학교수들이 이에 반대서명하고 이를 저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계속)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이주민들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하비스트 2017'가 개최됐다.

온 누리 이웃들과 함께 보낸 한가위

러스타와 하비스트 2017 ... 이주민 980명, 봉사자 230명 참석

온누리교회의 추석은 온 누리 이웃들과 함께 보냈다. 추석 연휴 기간 러시아 유학생들을 위한 '제2회 러스타(RUSTA)'와 이주민들을 위한 'HARVEST 2017' 집회가 막 올랐다. 이 행사에 이주민 980명과 한국인 봉사자 230명이 참석했다.

포문은 '제2회 러스타(RUSTA)' 집회가 열렸다. 러스타는 '회복'을 주제로 지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 동안 경기도 안산시 새중앙교회 대부도수양관에서 진행됐다. 러스타 집회는 한국에 유학 온 러시아 청년들을 위한 부흥집회다. 지난해 처음 막 올랐다. 이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온누리M미션, 디아스

포라교회 등 22개 러시아권 교회와 사역단체가 연합했다. 올해 러스타 집회에는 러시아에서 온 유학생과 고려인 450명이 참석했고, 그 중에서 약 50명이 봉사자로 섬겼다.

'하비스트(HARVEST) 2017' 집회도 열렸다. 하비스트 집회는 온누리M미션이 주관하는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다. 올해는 'Raise up'을 주제로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 동안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됐다. 네팔, 몽골, 미얀마, 태국,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온 이주민 5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봉사자 180여 명은 3일 동안 이주민들을 섬기며 구슬땀을 흘렸다.

하비스트에 참가한 어터거(안산M센터 몽골 어예베)는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매주 한 명씩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올 것"이라고 다짐했다.

봉사자 이올가(안산M센터 러시아예배) 자매는 "봉사자의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를 새삼 깨달았다"고 했고, 장은별 자매(여호수아공동체)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이주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다"고 고백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30기 이혼자행복학교

30기 이혼자행복학교가 개강한다.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서빙고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이혼 위기에 있거나 별거 중인 부부, 이혼한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성인 10만원, 자녀는 1인당 3만원이다.

이혼자행복학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기쁨의 회복', '못 다한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황혜리 교수(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 이동훈 목사(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담당), 스티브차 목사(영어예배 담당), 김형숙 권사(스위치 비전센터 센터장), 최승구 목사(이혼자행복학교 담당)가 강의한다.

문의: 010-2539-5665

일.하.세. 아카데미 GUM예배

'일.하.세.(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팀이 오는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 강남구 한국가곡예술마을 나움아트홀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GUM(Get Up in the Marketplace)예배를 드린다. 이날 드리는 GUM예배는 'Jazz처럼 자유롭게'가 주제이다. 박지용 교수(한양대 예리카 실용음악학과)가 연주하고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GUM예배는 미취업, 고용불안, 실업, 조기은퇴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일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예배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드리고 있다. 문의: 010-6321-9522

CGNTV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 다큐 시사회

CGNTV와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공동 제작한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 다큐 '독일 통일, 기도에서 기적으로' 시사회가 지난 1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흥홀에서 열렸다. 시사회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이철 당회서기, 황의서 장로 등 교회리더십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사회는 다큐 상영과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장로 장로는 "이번 다큐를 통해 한국 교회가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작진들을 격려했다.

10월 22일~11월 5일 양지 두드림예배

양지 온누리교회가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두드림예배(주일 오후 2시)를 '교회의 개혁, 그 500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드린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종교개혁가 루터, 츠빙글리, 칼빈의 개혁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강현 전도사(양지 온누리교회)가 '루터, 개혁의 대동', '츠빙글리, 개혁의 논쟁', '칼빈, 개혁의 완성'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문의: 032-332-8171

사랑챔버, 아버지와의 첫 번째 합동 공연

온누리 사랑챔버 희망콘서트 ... "든든하고 뭉클"

이번에는 사랑챔버 아버지들이 무대에 올랐다. 지난 10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온누리 사랑챔버의 희망콘서트에서 아버지 12명이 사랑챔버의 연주에 맞춰 수화와 율동을 선보였다.

사랑챔버 김길원 단원의 아버지 김진서 성도(노원공동체)는 "자녀와 함께 공연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사랑챔버가 얼마나 혼신을 다하고 있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고, 박혜연 성도는 "사랑챔버와 아버지들이 함께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이 무척 든든하고 뭉클했다"고 말했다.

온누리 사랑챔버 희망콘서트에서는 온누리 사랑챔버, 모스틀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테너 박지민, 바리톤 우주호, 소프라노 박현주와 김순영, 남성3중창 베르소의 공연이 이어졌다. 지휘는 사랑챔버의 손인경 집사와 모스틀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박상현 지휘자가 맡았다.

이날 사랑챔버는 G선상의 아리아, 축배의 노래, 에델바이스 외 8곡을 연주했다. 사랑챔버가 앙코르곡으로 '우리 모두 다함께 손뼉을' 연주할 때는 모든 관객들이 일어서서 함께했다.

대학청년부, 차세대, 예배 파트교역자 청빙

10월 30일까지 서류 제출

대학청년부, 차세대, 예배(찬양)를 섬길 파트교역자를 청빙한다. 대상은 1978년 1월 이후 출생한 정규 대학 및 신학대학원 M.Div 재학 및 졸업자, 교육대학원(기독교교육 전공) 재학 및 졸업자로 목회의 소명과 인격을 구비한 교역자다. 청빙과정은 서류심사와 인사위원회 면접을 거쳐야 한다. 1차 합격자는 10월 31

일 공지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지원 분야 설교 원고 1부, 신학대학원 및 기독교교육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스캔본 1부, 신분증 스캔본 1부이다.

서류양식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10월 30일까지 해당 서류를 구비해서 이메일(onnurihr@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www.onnuri.org)

문의: 02-3215-3233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봉사자 모집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에서 아프리카 르완다 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르완다 영유아 아동센터' 교육담당 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단원으로 선발되면 르완다 르와마가나시 응호망과마을에서 약 1년 동안 ECD(영유아아동 발달 교육)센터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교사교육, 홈페이지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영유아 아동교육 전공자를 우대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수록 좋다. 사역 기간은 조절이 가능하다. 문의: 02-2271-2246

32기 단기선교사(TP) 훈련생 모집

Acts29비전빌리지에서 32기 단기선교사(TP) 훈련생을 모집한다. 1년 이상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공동체 담당교역자에게 추천을 받은 온누리교회 성도(선교단체 허입), 건강한 선교단체 파송예정자(비온누리교회)가 대상이다. 신청은 Acts29비전빌리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www.visionvillage.org

문의: 031-331-8182

■ 선교지에서 온 편지



그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한다

/ 한샘물 선교사(동아시아A국)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심방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산동네에 있는 전통가옥에서 살고 있는데 어렵고 고달픈 상황 속에 있다. 교회는 전통가옥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하루에 보통 서너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먼 곳을 갈 때에는 한 가정만 방문하기도 한다. 회오리바람에 고립되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족과 무당, 이단들이 있어서 예배를 거부하기도 한다. 또 전도 중에 화를 내면서 나가는 가족들도 있다. 또 많은 가정에서 알코올 중독 치유가 필요하다는 기도제목을 내놓고 있다.

심방하면서 가장 마음이 저리고 아픈 것은 가난이다. 굶을 때가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보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과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럴수록 힘이 난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감사하며 형제자매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두 가정을 소개하고 싶다. 첫 번째 가정은 M형제의 가정이다. M형제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의붓아버지 밑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아

버지가 모두 다른 다섯 명의 동생들을 돌보며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M형제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독학으로 익힌 베이스기타로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이곳에는 제2, 제3의 M형제가 많다. 그들의 고통과 배고픔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녹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두 번째 가정은 올해 64세인 H할머니 가정이다. H할머니는 얼마 되지 않는 국가연금으로 외손자를 키우며 살아가고 계신다. 사위는 딸을 살해하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하나뿐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다. 할머니의 물건들을 하나씩 전당포에 팔아넘기고 받은 돈으로 술을 마시며 생활하고 있다.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H할머니를 보면 마음이 먹먹해진다.

A국은 경제난으로 일자리가 거의 없고, 일을 해도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기를 소원한다. 가정심방을 통해서 개인의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각 가정마다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 두란노 아버지학교 수료 간증



/ 정진용 집사(세종주원교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너는 어쩔 아버지하고 그렇게 똑같니? 아버지 살아계신 것 같다.”

누나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깜짝 놀랐다. 내가 그토록 닮기 싫어하던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담배와 술을 지었다. 아버지는 농사일이 힘들었는지 술을 자주 드셨다. 그때마다 우리 집은 초상집이 되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싸우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평소 다정다감했던 아버지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버지의 폭력이 반복되면서 내 마음 속에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쌓였고 절대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대학생활을 하면서부터 그 다짐이 무너졌다. 문제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부터였다. 예전에 없던 술버릇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매를 들고,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과거 아버지가 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술을 안 마실 때는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숙제도 잘 도와주었지만 술만 마시면 돌변했다. 아침에 술이 깨면 늘 후회했다.

지인이 아버지학교를 소개해주었다. 아버지학교를 간 뒤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좋아했던 술을 끊었고, 폭력과 폭언도 하지 않게 되었다. 나를 대하는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이 달라졌다. 아이들이 내게 다가와 안기는 것이 달라진 증거이다. 모두 아버지학교 덕분이다.

아버지학교에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기도를 해주는 것을 숙제로 내주었기 때문이다. 이 숙제는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아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현관에 조르르 달려와 나와 뽀뽀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때로는 아이들이 방에서 나를 부르면서 빨리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조른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가정임을 절실히 느낀다.

지금 나는 집에 일찍 들어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는 남자로 변신했다. 이전까지는 매사에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모든 일이 감사하고 기쁘다. 요즘은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더 바랄 게 없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145기 개강
날짜: 10월 21일~11월 18일 매주 토요일
문의: 010-5393-2748

■ 남양주 국내 순례여행 후기



/ 임찬웅 다락방장(남양주 온누리교회)

충청남도 강경에서

지난 10월 9일,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 80여 명이 충남 강경으로 순례여행을 떠났다. 처음 방문한 곳은 ‘병촌성결교회’였다. 병촌성결교회는 1950년 9월 27~28일 추석을 막 보낸 성도들이 후퇴하는 공산군들에 의해 이틀 동안 66명이나 순교한 곳이다. 학살현장에서 살아남은 김주옥 권사님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상을 볼 수 있었다. 김주옥 권사님이 직접 들었던 “주님 내 영혼 받으소서”라는 외침이 내 가슴을 헤집었다. 과연 나는 죽는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아직 미완성인 순교자기념관에는 순교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품에 안긴 ‘무명성도’의 명패 앞에서 걸음이 쉽게 옮겨지지 않았다.

다음 여정은 강경성결교회였다. 이 교회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최초로 거부한 교회로 알려졌다. 1924년 10월 11일 강경공립보통학교 학생들에게 신사참배 지시가 내려왔다. 다른 교사와 학생들은 모두 신사참배를 했지만 강경성결교회를 다니던 교사 김복희와 주일학교 학생 57명은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교

사 김복희는 스스로 면직을 택했고, 학생들 상당수가 퇴학을 감수해야 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리가 아니면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아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되새겨 보았다.

마지막으로 북옥리에 있는 한옥교회와 옥녀봉을 둘러보았다. 한옥교회는 31만세운동 당시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목사님이 일본인들에게 매를 맞은 보상금으로 지었다고 한다. 한옥교회는 6.25 때 인민군 본부에 찾아가 전도했던 목사님, 폭탄이 예배당에 떨어졌는데 터지지 않아 교회가 보존된 일 등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옥녀봉에서 바라본 금강이 무척 아름다웠다. 반대쪽 읍내에 높이 솟아 있는 교회첨탑도 돋보였다. 저 교회들이 강경의 등불이 되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순교의 길을 마다않고 걸어갔던 선조들의 발자취가 가득한 강경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염장법이 발달하였던 강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보았다.

■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 전경환 성도(가정사역공동체)

두 번째 일대일 제자양육

두 번째 일대일 제자양육을 수료했다. 첫 번째 일대일 제자양육은 2009년 남편을 위해 시작했다. 목사 딸인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었다. 그런데 첫 번째 일대일 제자양육은 여러 교회를 다니며 했던 새신자 성경공부에 지나지 않았다. 일대일 제자양육 숙제도 잘해가고, 양육자님 말씀도 잘 들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나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다. 결국,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를 네 번 남기고 종료해야 했다.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위기가 닥쳤기 때문이다. 그 위기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가정이 회복되었지만 간증을 쓸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한해 두해가 흘렀다. 작년에 남편과 다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했다.

두 번째 일대일 제자양육은 첫 번째 일대일 제자양육과 달랐다. 두 번째 일대일 제자양육은 나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었고, 한 과를 마칠 때마다 너무 행복했다. ‘전도’ 단락을 공부할 때였다. 말씀이 내 삶과 맞물

려 가는 것을 느꼈다.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감동이었던 단락은 ‘순종’이었다. 순종을 나누던 중에 나도 모르게 양육자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순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순종을 공부해도 될까요?”

다시 순종 단락을 이어가는데 장장 7주라는 시간이 걸렸다. 나에게 많은 순종이 필요했고, 그 순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모른다. 몸으로 체험한 후 순종 단락을 끝내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순종을 통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짓 없이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이 너무 감사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쉽다. 부족하기에 더 배워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 앞으로 이 부족함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두 번째 일대일 제자양육을 마치고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기에 기대되고 설렌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나갈 것이다.

멘토칼럼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조애신 멘토
(여호수아공동체)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살아 오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만약 내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 주저함 없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알아가면서 그분이 내 삶에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짧지 않은 시간동안 청년들의 멘토로 섬기고 있는데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소박한 조언을 해보려 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자로 살아가더라도 늘 성령 충만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먼저 청년들이 신앙성숙을 갈망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내면을 견고하게 다져야 한다.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질 것이다. 신앙성숙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아마도 많은 지체들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My utmost for his highest)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고전적인 묵상집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

님께’라고 번역할 수 있다. 현재 당신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시간이든, 재정이든, 예배든, 기도의 자리이든 당신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자투리 시간, 마지못한 섬김, 쓰고 남은 재정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를 위해 시간과 재정, 에너지를 구분해놓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기를 부탁하고 싶다.

‘자족과 감사’도 필요하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영적인 자세가 바로 자족과 감사이다. 자족은 채워지지 않아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은 염려와 두려움과 결별하는 것이다. 염려(worry)는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다. 염려가 아니라 자족하는 태도가 우리 삶에 자리 잡을 때 풍성한 감사가 임하게 된다.

감사는 삶 전체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내 삶에 하락하시는 크고 작은 축복들을 기적으로 여기는 것이다. 내가 오늘 호흡하고, 밥을 먹고, 걸어다니는 것도 기적이다.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적이다. 내 마음과 정신이 온전한 것도 기적이고, 지체들과 커피를 마시며 하나님에 대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는 씨앗을 당신의 삶 주변에 뿌려야 한다. 그 씨앗은 조용히 자라가며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하라.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자족과 감사로 나아가라. 그러면 담대함과 살림을 누리는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복지칼럼

치매예방 3원칙



곽경봉 원장
(용인 온누리요양센터)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8월말 기준으로 725만 7,2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었다.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 5,000명으로 추산 된다. 이는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라는 것이다. 40대에서도 초로기(初老期) 치매가 나타나고 있다. 치매가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내세운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문제를 가정차원이 아니라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문제로 떠오른 치매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만큼 교회도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치매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온누리교회는 일찍이 복지재단을 통하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울시가 담당해야 하는 치매문제를 분담하고 있으며, 나아가 온누리요양센터를 설립하여 신앙생활과 안정된 케어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필요를 감당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병이 그렇듯이 치매 또한 초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는 각 지자체에 치매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조기진단과 치매예방을 위한 여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치매예방협회가 소개한 치매예방관리수칙을 살펴보면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여라, 머리를 써라, 담배는 뇌 건강에 해롭다, 과도한 음주를 삼가야 한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다,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린다’ 등이 있다. 생활습관 속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즐겁게 생활하기, 사람들과 어울리기, 적당

히 먹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등이다. 제시된 치매예방법에 비추어 볼 때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해야 한다.

먼저, 사람 만나기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순 예배, 각종 성경공부, 일대일 제자양육, 순장 학교, JDS,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공동체 행사 등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수도도 떨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둘째, 몸으로 하는 사역에는 앞장서서 참여한다. 주차사역, 여름 아웃리치, 러빙핸드, 공동체 체육대회, 성찬식 준비, 남대문 족방, 온누리M센터 섬김,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다.

셋째, 몸에 좋지 않고 덕도 되지 않는 담배는 당장 끊고 음주도 삼가야 한다. 금주금연은 교회, 사회에서도 눈치 보지 않아서 좋고 치매예방에 특효가 있는 생활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묵상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류다. 큐티 생활화를 통한 말씀묵상, 성경통독학교, 쉬지 않는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은 치매예방에 있어서 필수품과 같다.

치매예방을 위하여 온누리교회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이미 셀 수 없이 많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이다. 간혹 마음은 굴뚝같으나 바쁘기 때문에 어렵다고들 말한다. 그러면 바쁘기 때문에 치매예방을 포기할 것인가?

치매를 옛 어른들은 노망(老妄, 늙어서 잊어버리는 병) 또는 망령(妄靈, 영을 잃는 병)이라고 했다. 어리석고 어리석다는 뜻을 갖고 있는 치매(癡呆)보다는 그나마 어른에 대한 경외심이 조금이라도 묻어나는 인간적인 단어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영을 잊어버리는 불행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 치매예방을 위하여 바로 지금 아이스쿨을 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자. 만나서 말씀도 먹고, 차 마시며 수도도 떨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 땀 흘리면서 봉사하자. 선교사님과 교우들을 위해 중보기도도 하자. 이것이 교회가 책임감을 갖고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매예방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장로칼럼



장양희 장로
(안양평촌공동체)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에 수소폭탄을 장착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이 인정하든 안하든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3대에 걸쳐 국가권력을 장악

한 기괴한 정권이지만 온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온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에게는 모욕까지 줬다.

“가진 것도 없이...”, “남조선은 대화자격 없어”, “(남)괴뢰들과 핵 문제를 논의하는 일은 추후도 없어”,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 “남조선의 근본 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대화는 하나 마나” 등의 표현을 써가며 우리나라와 북한의 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나라 안의 상황도 참으로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주변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마저 침체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이 국론을 통일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골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이 총체적 난국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네 탓 내 탓을 논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당쟁으로 지새우다 맞이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외세에 의존하다 일본에게 합병당한 경술국치, 좌익과 우익의 투쟁 속에 맞이한 6.25 한국전쟁 등 반복되는 역사의 비극을 돌아보며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역사의 고비길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을 때 길을 열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일제의 수탈과 전쟁의 폐해로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지난 70여 년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지금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우리에게 감사와 사랑과 나눔이 있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 이제는 북한 동포를 사랑하고, 탈북민을 내 형제처럼 대접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 “가진 자들의 탐욕과 경쟁사회 속에서 생기는 불의가 가득한 이 나라의 암담한 현실을 고쳐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이라도 달게 받겠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

북한이 과연 핵을 사용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공격을 가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온 국민이 제 소견대로 예상을 꺼내놓고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할 일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또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설사 내 뜻과 다르고, 이제껏 해온 관례를 깨뜨리고, 위태한 방향으로 나아갈 지라도 권위에 승복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선거로 내 뜻을 표현할 수 있다. 내 뜻을 주장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난국을 이겨내야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연한 의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의 위기가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이 난국을 기도로 헤쳐 나가자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일터에서 십자가로 승리하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얼마나 많은 백인들로부터 위협과 폭력과 살인위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39살에 살해당할 때까지 수많은 압력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느 성도가 와서 집에 폭탄을 터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흑인들이 총과 칼과 집에 있는 무기를 들고 나와 흥분해 있었고, 백인 경찰들은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 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손을 들고 성난 흑인 군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 같은 이들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저들을 선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흑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비폭력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사건이 흑인 인권운동의 놀라운 전기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흑인 인권운동을 지지하고, 미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유일한 도덕률을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권보다 상위개념, 더 넓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륜입니다. 인륜을 저버린 인권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매우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혁명적인 방법으로 사회가 전복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뤄지는 혁명은 또 다른 악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권보다 중요한 것이 인륜입니다. 인권은 인륜 안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이든지 의무와 책임보다 권리가 주도하는 사회가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는 대항하고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인륜을 더 강조했을 때 인권도 보호되고 사회도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니다”(19~20절).

여러분, 일터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불합리하게 취급당할 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승진하고, 원하는 일을 얻고, 인정받았을 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불평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21절).

일터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한 것이 왜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함도 없이 의로운 분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난 받고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발자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손해와 불행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얻었습니다”(22~24절).

여러분, 그분이 고난을 피하셨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피하셨다면 우리가 영원히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며 조롱받을 때도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인내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24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단지 죄를 용서 받게

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다. 믿음(내적)과 세례(외적)를 통해 그분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에 동참했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의 시제는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복수, 질투와 욕망, 적개심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실하게 체험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가장 의로웠던 사람이라는 욕이 고난 받았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실하게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지속되니까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맑은 연못의 물도 휘저으면 흙탕물이 되듯이 욕의 그 맑아 보였던 의로운 삶이 고난이 지속되니까 흙탕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고난의 여정을 통과해보니 회개할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억울함과 분노 속에 숨어있는 적개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교양 있고 아주 좋은 사람으로 마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한 대접에 사랑과 인내, 절제와 용서, 긍휼과 자비로 대하면서 십자가의 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터와 십자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터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교회 예배당 안에 걸려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삶의 원리가 되고 승리의 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일터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군부대에서 온 편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의 본을 보이며 귀한 사역에 늘 힘쓰는 온누리교회와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15사단 39연대와 예하부대를 담당하고 있는 군종장교 장한영 목사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군종장교로 근무하게 되었고, 최전방 부대에 배속되어 목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장마로 인해 39연대 예하부대 영내 교회인 산돌교회 외벽이 물에 잠기고, 예배

당 바닥부터 물이 역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바닥 전체가 물에 잠겨 청소를 하더라도 항상 습하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교회를 보수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군종병들과 “교회를 살리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교회를 청소하고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이곳저곳을 알아봤으나 비용이나 인력 면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좌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산돌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며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

님께서 바로 응답하셨고, 감사하게도 귀한 손길을 붙여 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로부터 선교비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귀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온누리교회와 이재훈 담임 목사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내주신 선교지원금은 산돌교회 보수와 함께 군장병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장병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예배당인 산돌교회를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감사의 마음은 더욱 크지만 글 솜씨가 부족하여 모든 기쁨을 표현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늘 온누리교회의 평안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10-4095-1846



장한영 목사
(15사단 39연대)

정말 감사합니다

CGNTV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 프로그램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생애를 바쳤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특집 다큐멘터리



대변혁의 시작

루터, 츠빙글리, 칼빈 등 대표적인 종교개혁가들의 삶과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짚어 봅니다.

방송 1부 10/17 (화) 오후 3시 30분
2부 10/24 (화) 오후 3시 30분
3부 10/31 (화) 오후 3시 30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중세 가톨릭에 저항하는 95개조 반박문으로 변화의 시작을 알린 마틴 루터. 애니메이션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 그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방송 10/28 (토) 오후 10시 50분

특집 대담

성도가 바라본 종교개혁 | 진행 라영환 교수 (총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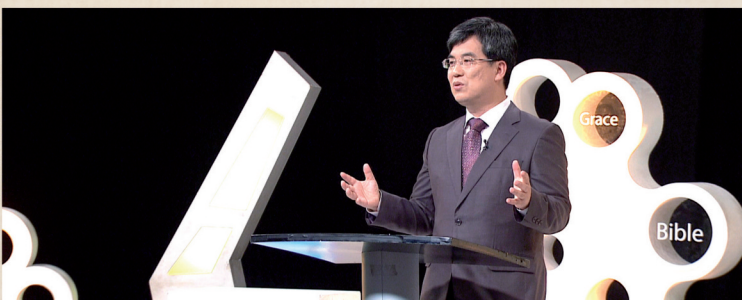


종교개혁과 일, 그리고 직업 (김윤희 대표, 방선기 목사)
방송 10/21 (토) 오후 10시



종교개혁과 교육 (양금희 교수, 이남규 교수)
방송 10/28 (토) 오후 10시

기획 세미나



기도의 사람, 경건의 실천 | 이성호 교수 (고신대)

종교개혁의 영향 '예배'
방송 10/19 (목) 오후 8시 10분

종교개혁의 영향 '직분'
방송 10/26 (목) 오후 8시 10분